

김영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저는 서울시민으로 30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부산에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강의 시작 전 몇몇 박사님들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미래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는 곳이더라고요. 저도 올 7월이면 다시 서울시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덕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죠. 요새 말하는 ‘무서운 삼식이’가 바로 집니다. (청중 웃음) 하루 세끼를 집에서 먹고 오늘도, 내일도, 모래도 계속 집에만 있는 거죠.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자살안내인이라든가 이런 어두운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쓸 때가 많기 때문에 어두워지기도 쉽고요.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집에 있으면서 밥 세끼 먹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집 골방에 있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오면 약간 설레기도 하고 에너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에서 농업을 하면 어떨까, 어떻게 바뀌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고민하십니다. 반면 저는 집에서 혼자 글을 쓰면서도 이 글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고 심지어는 저 자신도 헛갈려 합니다. 그런데다가 하루 종일 현실적인 일을 하진 않고 드러누워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보통의 남자들이 그럴 경우 아내가 야단치거나 핀잔을 주면 할 말이 없는데 소설가들은 작품 구상중이야, 중요한 생각 중이야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뒥굴거리게 됩니다. (청중 웃음) 그래서 노는 것과 일하는 것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요. 많은 분들은 소설가가 하루 종일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쓰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일과 노는 것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데다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도 몇 년 동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당장 이 사회가 위험해지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구체적인 타격을 입습니다만, 저 같은 소설가 전체가 사라진다고 해도 잘 알지 못 할 거예요. 요즘 소설이 뜸하네, 안 나오네, 이 정도일 겁니다.

저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앞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3년 전 뉴욕에서 3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서울의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2009년만 해도 신문이라도 읽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걸 보고 ‘아, 난 망했구나! 내 직업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가보면 사람들이 지하철 내에서 책이나 신문을 보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이 선진국 국민이라서기 보다는 핸드폰이 안 터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요. (청중 웃음) 맨하탄 지하철 역은 냄새 나죠, 쥐 다니죠, 조명도 낡은데다, 몇 시에 오는지도 모르는 지하철은 특하면 고장 나죠, 파업하죠, 사람들이 그저 체념한 표정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읽을 것을 준비하고 지하철을 타죠. 그런 것에 익숙해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게 잘 되어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디서든 LTE가 통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뉴욕에 있는 친구에게 한국엔 이런 거 다 되는데 뉴욕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친구 왈, 할 수 있지만 테러범들이 버스나 지하철이 몇 시에 오는지 알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청중 웃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나라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입니다. 소설가인 제 심정으로는 지하철에선 인터넷이 안 터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 안 있겠죠. (웃음) 우리나라에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6년 전엔가 독일에 갔는데 독일의 한 기자가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환경에서 한국의 작가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가 다른 나라 작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청중 웃음)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의 작가들은 굉장히 엄혹한 작업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이죠. 일단 텔레비전이 재밌습니다. 한국에서는 TV에 나오려면 군대 가야죠, 애 키워야죠, 애도 한 명 키워선 안 되고 세쌍둥이를 키우고, 자기 집 냉장고를 들고 나와야죠, 지독한 상황입니다. (청중 웃음) 사실 연예인의 냉장고를 열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남자만 가는 것으로 모자라 걸그룹을 군대로 보내 유격훈련을 시킵니다. 콘텐츠가 강력한 나라여서 전 세계에 수출할 정도죠.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곳곳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유혹을 접고 소설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작가들이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면 세계 다른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전달했었는데 그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에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한때 연쇄살인범이었던 70대 노인이 주인공이에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후 몇 십 년 동안 살인을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딸이 결혼하려는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연쇄살인범 같아서 그 놈만 죽이고 생을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딸을 위한 마지막 살인을 준비하는데 나이가 많이 든 데다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어 쉽지 않아요.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적어둡니다. 죽이자!, 누굴 죽이자는 거지?, 다음 날 보면 정신이 아리송합니다. 이 소설은 살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적고 기록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출판사에 얘기했더니 출판사 사장님과 편집자가 출판시장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70대 노인이 주인공인 소설을 누가 읽겠냐고 반기지 않더라고요. (청중 웃음) 대부분의 소설 독자가 20, 30대 여성들이어서 70대 노인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내용도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내용을 꼭 내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은 연령대를 40대 정도로 낮추면 어떠냐고 절충안도 내셨죠.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노인이어만 된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책을 내게 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낸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평균적으로 제 소설이 나가는 것보다 두 배 정도 팔려서 기록을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소설을 읽고 있긴 한데 몰래 읽고 있구나! (작가·청중 웃음) 소설 읽는 걸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동료, 부장님 이런 분들이 알면 안 되니까 몰래 읽다가 숨기고 지하철에서 동료 만나면 어떡해요.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이나 하는 척 해야지 책 보다가 동료 만나면 ‘아무개씨 소설도 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나 봐요. 몰래 주문해서 책을 숨겨놓고 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과장 섞인 농담이긴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여전히 소설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출판계 전체 발간종수가 18%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제가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께 ‘만약 어떤 산업의 외형이 1년에 18% 정도 줄어들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니 ‘거기를 얼른 탈출해야 합니다.’ 하더라고요. (작가·청중 웃음) 곧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탈출할 수도 없으니 난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간에 소설은 1, 2% 정도 성장했습니다. 다른 분야가 확 줄어들었고 문학, 소설 쪽은 오히려 판매도 늘고 종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많이 줄어든 부분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사

람들은 10년 전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걸 샀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윤리나 강조하는 가난한 아빠를 버리고 부자 아빠를 정신적 아버지로 맞아들여 자본주의와 한 길로 나아가자, 이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아빠도 바꿔보고 10억 만들기도 도전해 봤지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쪽을 줄이고 소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도 물론 소설가이지만 한 사람의 독자로서 늘 책을 읽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이 수천 권은 될 텐데요, 제가 쓴 책은 스무 권 정도밖에 안 되니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셈이죠. 여기 계신 연구원 분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책을 읽지만 쓰는 양은 적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기에 그 비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소설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나 메시지, 교훈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설을 고전으로 받아들여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면 소설이 갖고 있는 기묘함 때문이거든요. 소설은 부도덕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 옛날에는 금지된 책도 있었던 데다 주제나 메시지를 찾기 어려워요.

어떤 아이가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엄마가 바로 나타나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뭘 느꼈니?’ 아이는 소설을 재밌게 읽었지만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느꼈는지, 주제가 뭔지를 물어보면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소설에서 주제 찾기가 어려운데다 부모님들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는 뭘 느끼긴 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글을 읽는 동안 아이는 낯선 세계에서 헤매면서 자기가 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는 등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엄마가 뭘 느꼈냐고 물어보면 아이는 당혹스럽겠죠. 아이 잘못이 아니라 원래 소설 읽은 직후에도 그렇고 한참 지난 후에도 소설의 주제나 메시지, 교훈 같은 것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그것을 교묘하게 감춰놓았기 때문이죠.

소설에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고, 사람마다 중심이 달라서 똑같은 소설을 읽어도 그 중심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혹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각기 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국어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떤 문학작품에도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불변하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마치 문학작품을

읽는 목표인 양 읽는 내내 정답이 뭘까, 여기서 뭘 느껴야 하는지를 생각하다가 흥미를 잃게 되죠.

작가도 자기 작품의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작가들이 심심풀이로 자기 작품이 실린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어볼 때가 있는데 오답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청중 웃음) 시인들은 자기 시의 밑줄 그은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틀리기 십상이죠. (청중 웃음) 뭘 비판하느냐고 묻는데 비판하기 위해 소설을 쓴 것도 아니거든요.

전 소설이 잘 설계된 정신적 테마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설계된 미로들을 헤매는 거예요. 미로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가오겠죠. 그 안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설에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뛰어넘어서 핵심 주제를 빨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몇 해 전에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소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1위가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였습니다. 예전 영미권에서는 그리 순위가 높지 않았죠. 시간이 갈수록 『안나 카레니나』는 순위가 높게 올라가고 작가들도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이 소설을 좋아하고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인지 대충은 아시죠. 안나 카레니나라는 여자가 있죠. 이 여자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총리 부인에 잘난 아들까지 둔 아쉬울 게 하나 없는 귀부인인 셈이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를 타는데 옆에 노부인이 앉아있어요. 노부인과 얘기를 나누다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 그 노부인의 아들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조인성이에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안나 카레니나,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는 이 여자가 흔들립니다. 젊은 남자, 브론스키와 마주치자, 안나는 ‘와, 멋지다!’ 이런 느낌이 아닌 불길함을 느낍니다. 뭔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나는 처음에 그에 대한 끌림을 거부하는데 브론스키는 파티장마다 나타나서 안나를 자꾸 쳐다보고 말을 걸면서 들이댁니다. 결국에 안나는 몸을 허락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쉬운 일이 없죠.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허락해주겠어요? 안해줍니다. 이 소설은 브론스키와 살고 있는 그녀가 남편한테 가서 이혼해달라고 하고, 애 보고 싶다고 울고, 브론스키가 다른 여자 만나서 울고 그런 내용으로 계속 되다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스포일 당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읽으셨으면 앞으로 읽을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청중 웃음) 고전이 오래 살아남는 이유는 줄거리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읽는다는 사실입니다. 줄거리를 알고 읽어도 재밌기 때문에 100년이 지나도 살아남은 책인 거죠.

이 소설의 주제나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바람을 피우면 죽는다? (청중 웃음) 이런 정도의 교훈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한 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썼다면 주제나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제나 메시지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너무 길어요. 얼마나 긴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나 카레니나』가 명작이라 길래 서점에 가서 상/하권을 사서 열심히 읽었어요. 처음에 러시아 이름의 압박만 넘어가니까 생각보다 재밌는 거예요. (청중 웃음) 친구들한테 강추하고 역시 세계명작이구나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서점에 가보니까 중권이 있더라고요. (청중 웃음) ‘중권? 나는 상하권으로 잘 읽었는데 왜 중권이 있지?’ 이 소설은 중권을 읽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번 해보세요. 상권 읽고 하권으로 가도 계속 안나가 고민 중이에요. (청중 웃음) 집으로 돌아갈까? 애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과 러시아 개혁에 대한 톨스토이의 장광설도 계속 됩니다. 지극히 긴 이 소설을 상/중/하 3권 다 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소설을 읽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은 메시지나 교훈이 없거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잘 숨겨져 있고 그것 외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안나 카레니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

워싱턴포스트지에서 2위를 했던 소설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롤리타』입니다. 험버트라는 중년 남자가 자신의 하숙집에 있는 롤리타라는 14살 소녀를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는 감옥까지 가요. 소설을 시작하면 롤리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험버트가 첫 장부터 ‘롤리타, 롤리타, 롤리타’ 이러고 있어요. 나보코프의 묘사가 참 독특합니다. 롤리타(Lolita)의 L발음을 할 때 혀가 입천장에 닿잖아요. 험버트는 자기 혀가 입천장에 닿는 이 느낌을 음미하고 있어요. 우리는 첫 장부터 이 남자가 변태적 성향을 지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중 웃음) 그리고 끝까지 롤리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이에요.

작가들이 뽑은 위대한 소설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세계 명작을 읽으면 『명심보감』에서와 같은 교훈을 얻으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교훈을 주는 소설이 거의 없다는 점이 소설의 이상한 점이죠.

◆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위대한 소설 세 번째로 꼽힌 것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인데요,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소설이 독특한 이유는 죄를 지었는데도 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스콜니코프는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살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당포 여주인 노파는 사채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라스콜니코프는 저 노파가 무가치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죽이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당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혁명이라는 대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백 만 명을 죽이는데도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좋아하잖아요. 라스콜니코프는 나폴레옹에 빠졌죠. 그래서 자기도 뭔가를 하고 싶는데 할 게 없어요. 노파부터 죽이려고 하는데 노파가 조카딸과 같이 있는 바람에 죄 없는 조카딸까지 죽이게 돼요. 라스콜니코프는 친구들한테 낄낄거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반성하거나 걱정하지도 않아요. 이 소설 역시 어떤 교훈을 얻기 어려운 소설이고 그럴수록 작가들이라든가 독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게츠비』

『위대한 게츠비』가 7위였는데요, 제가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게츠비도 본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진상 구 남친이죠. 5년 전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없었던 걸로 하고 준재벌급 남편한테 가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고 지난 5년 동안 내 마음 속에는 오직 게츠비 뿐이었다.’고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주인공 데이지가 게츠비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제목이 ‘위대한 게츠비’니까 위대한 특성이 나오나 싶겠지만 그저 광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온 인물들 중에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소설 속에는 롤 모델도 없고 교훈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 그저 혼란스러운 세계일뿐이죠.

◆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돈키호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키호테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노인이죠. 돈키호테는 당시의 판타지 소설인 기사도 소설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자기가 기사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세숫대야를 뒤집어쓰고 비루먹은 말을 타고 길을 나섭니다. 책 때문에 그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한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돈키호테가 읽었던 책들을 불태운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돈키호테는 자기 책이 불타서 없어졌다고

올어요. 돈키호테는 그런 사람입니다. 책이 없어졌다고 올면서도 어리석기도 하고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

돈키호테의 인물 유형에 대하여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돈키호테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조카가 해리포터를 읽고서 호그와트 마법 학교를 가겠다고 인천공항을 배회하다가 비행기 타고 영국에 가서 그곳 지하철 안을 헤매는 이야기로 보면 된다고요. (청중 웃음) 현실과 환상을 착각하는 걸 세르반테스는 창조해낸 거죠.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책과 현실세계를 혼동하는 인물이어서 이것 역시 본받을만한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도 현대문학을 열었던 작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학의 세계에 발을 디더놓으면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밀란 쿤데라는 이를 ‘소설은 법적 판단이 중지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설의 세계로 넘어가면 사람들은 더 이상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걸 보고 ‘이런 나쁜 자식이 있나!’ 하고 책장을 덮지 않고 계속 본다는 거예요. 마담 보봐리가 바람을 피우고 빚을 지게 돼 자기 삶을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갈 때는 그녀가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안나 카레니나 역시 불륜을 저지르지만 ‘이 여자 미쳤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여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계속 소설을 읽어나갑니다. 살인자가 나오든 불륜을 저지르든 엄청난 악인이라 할지라도 소설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참을성 있는 사람이 돼요. <양들의 침묵> 같은 걸 보면 끔찍한 인물이지만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실로 넘어오면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냉엄한 도덕적 판단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20년 전 대학원생 시절, 아침마다 롯데월드 수영장을 다녔어요. 아침이다 보니 주로 중년 여성들과 같이 배우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리 수영 강사가 안 나오고 다른 강사가 와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제 뒤에 계신 여성분들이 떠드는 바람에 모든 스토리를 알게 되었어요. 수영 강사가 수영장의 어떤 여성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은 딸이 숙대 무슨 과를 다니고 잠실5단지 몇 동에 살고 남편은 어디서 회사를 다니고 이런 얘기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수영 강사가 ‘자, 출발하세요!’ 하면 자유형으로 열심히 푸와푸와푸와 하면서 반대편으로 가서 못 다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청중 웃음) 스토리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던 거고 그분이 이야기를 할 때

마다 다른 관객들은 코러스처럼 ‘미쳤어, 미쳤어!’를 반복해요. 이것이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도덕적 판단이 중지된 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는 도덕적 판단이 살아있습니다. 그 여성이 수영 강사하고 깨진 다음에라도 이 수영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분은 그 세계에서 추방당했다고 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안나 카레니나』를 참을성 갖고 보면서 동정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 수영장의 바람난 여성을 동정하거나 공감하지 않죠.

그 외에도 그 수영장에서 재밌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롯데월드가 개장할 때의 일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탈의실에서 수영모자만 쓰고 나왔어요. 수영복을 안 입고 나온 거예요. (청중 웃음) 다른 아주머니들이 발견하시고 ‘어어어’ 이랬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손을 흔들며 물속으로 풍덩 들어오셨어요. 그니까 이분은 샤워기 근처에 수영복을 벗어놓고 수영모만 쓴 채 샤워를 한 뒤 수영복을 입었다고 생각하고서 수영장으로 나온 거였죠. 그래도 주변 여성분들이 의리가 있더라고요. 수영장 안에서 원을 둘러싸고 그분을 보호하고 한 분이 가서 수영복을 가져와서 그 분이 그걸 입으셨어요. 남성분들은 다 딴 데를 보고 있었고요. 그 뒤로 그 수영장 탈의실 앞에 대형거울을 설치하더라고요. 수영장으로 나올 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청중 웃음)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그 수영장으로 올까요? 안 오죠. 실제로도 안 오셨고요. 저는 나중에 이 일화를 「너를 사랑하고도」라는 소설에 쓴 적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부도덕한 일을 한다거나 어리석은 일을 조금만 해도 사회로부터 배제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죠. 그런 일을 겪은 인물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뇌를 찍어보면 윤리적 영역의 판단이 활성화 된다고 하죠. 몇 초 만에 기사 제목만 봐도 ‘죽일 놈이네! 애 어차피 비호감이야.’ 판단을 내리잖아요. 아침에 인터넷에 접속하면 오른쪽 상단에 우리가 욕할 사람의 명단이 1위부터 10위까지 실시간 검색어가 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중 웃음) 그래서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면 죽일 놈도 있고 아닌 놈도 있어요.

현실에서는 숨 막힐 것 같은 냉엄한 윤리적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조금만 비효율적으로 행동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치명적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소설을 몰래 읽으면서 다들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설에서는 인격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범죄자든 욕망에 굴복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이야기를 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설가들이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문학 소설은 인간이 평소에는 겪지 않는 일들, 특히 욕망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충동에 굴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읽도록 되어 있어요.

◆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제가 쓴 소설도 여러 권 있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쓴 소설 장편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도덕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 소설은 자살안내인의 이야기로 카탈로그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자살을 권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스물여덟 살에 쓴 소설이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할 때여서 성적인 내용도 많고 어지럽게 진행됩니다. 이 소설을 쓴 직후에 결혼 이야기가 있었죠. 지금 제 아내가 된 그 친구가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소설가랑 결혼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어요. 당시 딸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신 그 친구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참으시면서 ‘어떤 소설을 썼니?’ 하고 물으셨대요. ‘한 권 있긴 한데 엄마, 아빠는 안 봐도 돼!’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 그녀가 말했대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청중 웃음) 목소리가 썩 좋지 않으신 상태로 전화를 끊고서 그 길로 서점에 가서 책을 사 보셨나 봐요. (청중 웃음) 그래도 내용은 제목과 다르겠지 기대하셨겠지만 다르기는 뭐, 더 심했겠죠. 그래도 결혼을 허락해주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받았을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쓴 소설들도 도덕적이거나 교훈적이라거나 분명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 『오빠가 돌아왔다』 『빛의 제국』

『오빠가 돌아왔다』의 경우도 어렸을 때 가출했던 오빠가 열일곱 살짜리 동거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빠가 ‘어디서 이제 집으로 기어들어와!’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겨서 두들겨 맞는 게 소설의 서두예요. 2006년에 쓴 『빛의 제국』도 간첩이 주인공입니다만, 그의 아내는 외제차 영업직이고 법대생과 불륜을 저지르는 내용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소설을 쓰는데도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문학동네작가상, 『오빠가 돌아왔다』는 이상문학상, 『빛의 제국』은 만해문학상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부도덕한 내용을 쓰면 잘했다고 상을 주고 칭찬하는 그런 세계예요. (청중 웃음)

제 중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중2예요, 무서운 중2.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책을 안 읽어서 제 친구가 책을 사주기로 했는데 본인도 책을 안 읽으니까

무슨 책을 사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 중에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상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 책을 몇 권 사다가 아들에게 줬더니 그 친구가 게임도 안 하고 계속 책을 읽더라고요. (청중 웃음) 뭔가 잘못 됐다고 느낀 친구가 책을 압수해서 읽어보고는, ‘차라리 게임을 해라. 이러다 아버지 패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재밌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했대요. (청중 웃음)

문학의 세계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부모들이 새삼스레 문학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어둡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강연에서 어떤 학부모께서 물어보셨어요. 아이가 웹툰을 보고 있어서 자기도 같이 보려고 봤더니 내용이 이상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명작 같은 걸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명작도 어둡습니다.’ 하고 대답해 줬습니다. (청중 웃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럼 웹툰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가 다릅니다. 그냥 내버려두세요.’ 중2짜리 아들이 읽는 웹툰을 엄마가 따라 읽고 댓글을 달면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청중 웃음)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라고 해서 밝고 명랑한 이야기일 거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읽었던 『빨간 구두』도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구두 하나 탐을 냈다고 영원히 춤을 추다 발이 잘리잖아요. 발이 잘리고서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잖아요.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마녀가 애들 뼈로 국을 끓이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겨울 왕국>도 밝은 이야기 같지만 남과 화해할 수 없는, 저주 받은 능력을 가진 아이가 세상과 화해해가는 이야기잖아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당혹감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들은 이야기 세계를 너무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소설이나 동화는 밝고 아름다운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야기의 본성상 어두운 이야기가 많고 위기와 재난,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설을 왜 읽을까?’에 대한 질문에 타인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몇 주 며칠에 걸쳐서 타인의 성격, 결함, 욕망 이런 것들을 참을성 있게 읽어나가지 않아요. 현실에서 우리는 빨리 판단을 내리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동안 우리는 바람을 피운 유부녀의 내면이나 변태 중년남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정의를 위해서 희생은 필요하다고 보고 살인을 결행하는 남자, 라스콜니코프는 사실 알카에다나 IS 같은 테러리스트의 원형과도 같은데, 이런 인물들의 내면을 오랫동안 들여다 볼 이유가 없죠. 이게 소설을

읽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소설을 통해서 타인들을 이해하게 되고 동시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게 되죠.

우리는 함부로 바람을 피우지도, 수영강사와 갑자기 도망을 가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전혀 아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되면 비록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안나 카레니나』가 보여주고 있죠. 꼭 결말이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톨스토이는 참 잘 썼어요. 그는 이 소설을 33세에 시작에서 36세까지 썼습니다. 완전 물이 올랐을 때죠. 3년 동안 쓰다 보니 안나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 여자 너무 지겹다. 이 여자 이야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3년 동안 못 벗어났어요. 하지만 작가로서는 물이 올라서 모든 인물에게 전지적으로 감정이입을 해요. 심지어는 개의 시점으로 서술된 장도 있어요. 그것도 꽤 그럴 듯해요. 하여튼 이걸 보면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함으로 가득 찬 인물들의 이야기를 며칠, 몇 주 동안 읽는 거죠. 이게 소설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이런 이상한 세계를 평소에 경험할 일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보자면 소설은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대신 경험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죠. 오늘 같은 내일이 있길 바라고 약간 월급이나 올랐으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설이 가진 시뮬레이터로서의 기능에 주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이 유독 강한 미국 뉴스쿨에서 연구한 건데 뇌 MRI를 찍어보면 사람들이 소설에서 슬픔, 분노, 애석함 등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현실에서 느낄 때와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 된다고 하죠.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비롯한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감정을 느끼려면 갈등이나 위기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설에 그런 게 없다면 아무도 읽지 않아요. 꼭 소설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보라고 하면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위기와 갈등 혹은 재난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너선 갓셜(Jonathan Gottschall)이라는 사람이 글을 갓 깨우친 4, 5살 아이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고 했답니다. 그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는 이런 식이였어요. 배트맨이 뽀로로를 때렸어요, 뽀로로가 화가 나서 배트맨 입을 찢었어요, 배트맨은 화가 나서 날아갔어요. 아니면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갔어요, 개를 따라가 보니 아마존이었어요. 이런 식의 갈등으로 점철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를 지나가는데 여자 아이 세 명과 남자 아이 한 명이 돌멩이와 풀을 가지고 모여 있어요. 뭘 하는 걸까요? 돌멩이와 풀을 가진 아이들, 제사 지내는 걸까요? (청중 웃음) 애들은 소꿉장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다 하셨죠? 요새 컴퓨터도 있고 장난감도 많은데 애들이 아직까지 소꿉장난을 하다니, 신기한 마음에 주의를 기울였죠. 소꿉장난은 원초적인 스토리텔링입니다. 대본이 없잖아요. 이야기를 즉석해서 만들어요. 엄마 역할을 맡은 여자애가 흉내 내는 거죠. 돌을 들고 풀을 뺑는데 첫 대사부터 끝내줘요. ‘오늘도 너희 아빠 늦으시네!’ 이러면서 분노의 요리를 합니다. (청중 웃음) 엄마가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죠. 애들은 벌써 엄마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아빠가 올 때까지 집안 분위기가 어두움으로 가득해요. 애들은 스토리텔링 강좌 같은 걸 들은 게 아닌데도 이야기를 만들려면 일단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특별히 배운 거 없이 동화책 몇 권 읽고서 아이들은 아는 거예요. 조금 전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든다고 하면 위기와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위기와 갈등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몇 천 년 동안 사랑해왔어요.

호메로스라든가 소포클레스라든가 대가들이 썼던 글을 보면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위기에요. 시작하자마자 신들이 질투하고,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를 보면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해안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서 해마다 10년이 지났지만 집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회의를 수집합니다.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를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려보낼 것인가로 문제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칼립소한테 붙잡혀 있으니 집으로 보내자고 생각하는데 보아하니 집안이 개판인거죠. 아들내미는 아직 어리고 엄마는 구혼자들로 가득차 있는데 이 구혼자들이 ‘오, 솔레미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집 재산을 축내면서 있어요.

이처럼 위기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의 전통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는 평온한 이야기들을 바라죠. 예를 들면 현실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영하니?’, ‘그래,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잘 지내.’ 그러다가 ‘혹시 소인이 전화번호 아니?’, 물어봅니다. ‘소인이? 전화번호 받아놓은 것 같은데 문자로 짜줄게!’, 문자로 전화번호를 보내면, ‘고마워!’, 그러면 끝이겠죠.

그러나 이야기에서는 다릅니다. 친구가 전화를 하죠. ‘영하니?’, ‘오랜만이네!’ 이러다가 ‘근데 너 혹시 소인이 전화번호 아니?’, 그러면 ‘너가 어떻게 소인이 전화번호를 물어볼 수가 있어? 이런 개자식!’ (청중 웃음) 이렇게 되면 이 셋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야기

예요.

◆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몇 년 전에 나온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도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자기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왜 왕따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냥 살았으면 괜찮은데 뒤늦게 그걸 알아보려고 생각하니 위기와 갈등이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옛날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네가 저질렀던 어떤 일 때문이라고 애길 하게 되고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것 같은 위기, 시련, 갈등을 찾게 되고요, 이야기는 좋은 삶든 기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겪는다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앉아서 플랜B 같은 걸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그러는데 알다시피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가득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밝은 모습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걸그룹을 보겠다고 잠깐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믿었던 배우자가 배신을 한다거나, 아이가 반항을 한다거나, <풍문으로 들었소> 드라마처럼 착한 아들이 자기 아이라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기도 하죠. 그때부터 평온한 삶에 문제가 일게 되죠.

이야기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평온한 균형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어떤 시련이나 위기를 겪으면서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려고 투쟁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캐릭터 가운데 ‘이순신’이 있죠. <명량>에서 보드시피 이순신은 시련을 충분히 겪었어요. 이분은 과거 급제부터 마흔이 넘어서 됐죠. 지금으로 치자면 55세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인데 그것도 문과가 잘 안 되가지고 무과로 가신 분이잖아요. 남쪽에 가서 수군들을 통제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보스가 자신을 믿지 않아요. 한국 남성들이 이순신에게 자기를 많이 투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일단 배가 열두 척 밖에 없고요, 보스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변에는 아첨하는 간신배들에 둘러 쌓여있는 이순신은 그런 면에서 좋은 이야기의 소재가 됩니다. 평온했던 자신의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충분한 시련을 겪었을 때 ‘그냥 배가 열두 척 있으니 이걸로 인근에서 해적이냐 해야겠다!’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일본 왜군과 있는 힘을 다해 싸우고 결국은 죽잖아

요. 작가들이 사랑할 만한 인물이죠. 거꾸로 보자면 자기 삶의 균형이 무너졌고 충분한 시련을 겪었는데도 투쟁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시련, 위기, 고통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신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패턴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가 고아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고아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어두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부모는 이런 경향을 보면,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싶은 건가요.’ 하고 말하기도 하죠. (청중 웃음) 고아가 되고 싶은 욕망에 고아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고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아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인생의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이에게는 크나큰 공포입니다. 엄마가 회사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죠. 그때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이따 올께!’ 그런데 엄마가 안 오면 어떡해요. ‘엄마 꼭 와, 얼른 와!’ 하지만 아이의 마음 속에 엄마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아이는 굉장히 두렵죠. 엄마가 그날따라 야근이 있거나 일이 있어서 다른 집 엄마보다 30분쯤 늦게 오면 아이는 굉장한 공포를 느끼죠. 그 30분을 아주 긴 시간으로 생각하고 엄마가 영원히 날 버릴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무서운 상상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있는 무서운 상상은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야기를 읽거나 영화를 보죠. 그래서 아이들도 고아 이야기를 봐요.

작년에 여러분이 지겹도록 들었을 ‘Let it go’, 그 노래가 나오는 <겨울 왕국>을 봐도 알 수 있죠. 엘사는 모든 걸 얼려 버리는 신비로운 힘이 있는 아이죠.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배를 타고 나가서 허망하게 죽자 엘사는 혼자 힘으로 그 왕국을 통치해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생인 안나에게조차 그 비밀을 말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도망갑니다.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도망가지만 나중에는 그 능력을 활용하여 왕국을 구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점과 화해하게 되죠. 해리포터도 마찬가지로 고아이고 친척 집에서 시련을 겪으며 살았잖아요. 또 소공자, 소공녀도 그렇죠. 무협지를 봐도 집안이 풍비박산난 후에 아이 혼자 살아남죠. 수많은 스토리가 고아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냐면 아이들에게 고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면 설령 부모가 사라진다고 해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위안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안은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직접적으로 ‘엄마, 아빠 없어도 넌 잘 할 수 있어!’ 하고 말하는 대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야기는 아이가 쉽게 느끼게 하는 것보다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고아 이야기에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불안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는 다른 고민이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이야기들이 필요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됨에 따라 많은 이야기들을 바꿔가면서 생각하게 되죠. 『죄와 벌』 같은 소설은 고아 이야기와는 다른 형태의 불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친구가 라스콜니코프면 어떻게 하지?, 라스콜니코프 같은 인간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 『마담 보봐리』에서처럼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매력적인 남성을 만나면? 그 남자가 나를 유혹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들 역시 『안나 카레니나』가 다루고 있는 좀 더 어려운 형태의 불안입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소설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같은 문제들을 건드리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하는지를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서점에서 사인회를 할 때 한번은 어린 아이가 와서 『위대한 게츠비』에 사인을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아저씨 알아?’ 모른대요. 엄마가 사인 받아오라고 해서 나왔대요. 그 친구는 엄마가 『위대한 게츠비』를 한글판/영문판으로 사주면서 독서와 영어공부를 같이 하라고 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게츠비』는 어려운 이야기인데다 영어공부하기에 적합한 텍스트가 아닌데 말이죠. ‘너 최근에 무슨 책 읽었니?’ 물어보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고 있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대 비극은 하나 같이 막장 드라마에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햄릿』만 예를 들어도 어디 갔다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삼촌이랑 결혼했다는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촌이 아버지를 죽인 거 같고, 자기도 곧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초등학교 3학년이 읽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맥베스』도 『리어왕』도 마찬가지 이야기잖아요.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는 법인데 부모님들의 조급함 때문에 아이들은 단계를 건너뛰게 되는 거죠. 인간은 단계마다 자기가 상정할 수 있는 두려움과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읽을 것인가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로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맨스는 여성이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약자입니다.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도 약자고, 정치적으로도 약자고, 체력적으로도 약자인데다,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신의 반려자를 고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고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도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한 로맨스 소설은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단 삼각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매력적이지만 성질이 더러운 남자가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 사장님이거나 실장님이고 성질이 더러워 말도 막 하는데 집에 오면 이상하게 그 남자가 떠올라요. ‘뭐지? 왜 자꾸 떠오르지?’ 그런데 주변에 자기와 처지도 비슷하고 잘 이해해 주고 마음도 따뜻한 남자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따뜻한 이 남자랑 잘 지내볼까? 그런데 성질이 더러운 그 놈이 자꾸 생각나죠. 삼각이든 사각이든 오각이든 상관없어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이끌면 여성들에게는 끝없이 재밌는 문제거든요. 여자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사냥을 떠나고 여자들은 동굴에 모여서 남자들이 사냥해온 것들을 저장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채집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팀워크라든가 조화가 중요했죠. 그래서 여성들은 관계에 집중하는 반면 남성들은 과업을 수행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죠. 어쨌든 여성들은 로맨스를 즐기는 반면 남자들은 무협지라든가 판타지를 좋아하죠. 대부분의 남성 화자가 천둥벌거숭이로 모험을 떠납니다. 무공을 익혀서 절세미녀의 사랑을 받는 허황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계속 읽게 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성들이 날 사랑해줄까?’, 그 다음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밥 먹고 살 수 있을까?’입니다. 이 불안을 판타지라든가 무협지가 해소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거듭하여 단계에 따라 읽으면서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죠.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겪지 않은 일을 마치 겪은 것처럼 심리적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실제 겪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몰입하고 감정이입하는 건 인간이 가진 놀라운 능력이에요.**

몇 십 년 전 강제규 감독이 만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어요. 이 영화에 두 잘 생긴 남자배우, 장동건과 원빈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여담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방송국 라디오에서 책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방송작가가 장동건 씨를 한 번도 못 봤답니다. 방송국 생활을 15년 이상 한 여성 작가였기 때문에 웬만한 연예인은 봤지만 장동건은 못 봤대요. 알고 보니 장동건이 <신사의

품격>전에는 TV 출연을 안 했더라고요. 어느 날 방송국 복도 저쪽에서 장동건이 걸어오더라고요. 그저 무심하게 지나가려고 마음먹었는데, 돌이 바로 스쳐지나갈 때 장동건이 고개를 돌리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무릎에 힘이 풀려서 벽을 딱 잡았는데 장동건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더라고요. (청중 웃음) 방송국에서 15년 밥을 먹었지만 잘 생긴 배우가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고 해요.

그런 장동건이 <태극기 휘날리며>를 찍었잖아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 부산에 한 영화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장동건이 원빈을 때리는 장면이 나와요. 두 사람은 형제인데 인민군, 국방군으로 만나서 그들이 서로 형제인 줄 몰랐던 거죠. 그러자 맨 앞에 있던 한 여성 관객이 ‘그만 해, 니 동생이야!’ 스크린에 대고 외쳤다고 해요. (청중 웃음) 너무 몰입한 나머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는 인간이 가진 신비한 능력으로 이야기에 완전 몰입한다는 점이지요.

TV드라마를 보면 현실이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결말을 이렇게 바뀌라, 저렇게 바뀌라, 김남주한테 너무 한 거 아니냐고 하죠. 환상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참견들을 하잖아요. 인간은 비판력과 성찰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이입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들을 동시에 사용해야만 이야기를 즐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설을 읽을 때 성찰력은 사용하지 않고 감정적인 것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우리의 뇌는 성찰력으로 옛날에 내가 읽은 이야기인지,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범인인지, 누가 누구랑 사귄 것인지 등을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의 작품이랑 비슷하다, 옛날에 읽었던 다른 책들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컴퓨터처럼 뇌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판단하려고 노력해요. 한편으로는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그만 해, 니 동생이야!’ 같은 마음도 들고 마담 보바리가 나중에 바람을 심하게 핏 때는 마음이 아프죠.

인간의 신비한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성적인 면도 발전시키고요, 감성의 풍성함도 같이 발전시키는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지금까지 진화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설가들이 새로 이야기를 만들 때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독자들이 성찰적 능력을 사용해서 기존의 읽었던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뻘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배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예측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야 하면서도 흥미로운 미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들을 판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줄

수 없는 복잡한 형태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일에 마음의 대비를 시킨다거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단초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야기 산업은 지금도 급팽창 중입니다. 이야기산업은 그 규모가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헐리우드는 작가 구인난으로 난리라고 합니다. TV채널이라든가 IP채널에서 판권들을 사들이고 넷플릭스(Netflix) 경우는 다른 나라 콘텐츠들을 수입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니까요.

이야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속성은 앞으로도 더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 같아요. 물론 소설을 사람들이 읽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자체를 사랑하는 우리의 어떤 지혜랄까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전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응답>

Q1. 선생님께서 조금 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무라카미 하루키와 시인 고은이 단골로 노벨문학상 후보자로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번역된 소설 가운데 가장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나도 언젠가 노벨문학상을 타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

A1. 작가들이 모이면 노벨문학상 얘기를 합니다만, 매일 로또를 사는 것과 비슷한 마음으로 평생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이 그 이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작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때부터 너무 바빠지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자기가 뭘 써도 노벨문학상 작가로서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소설은 기본적으로 놀이라고 생각해서 재밌는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쓸 때 재밌고 그래야 즐거움이 있지, 엄청난 부담감으로 사람들에게 끝내주는 글을 주겠다는 마음으로는 곤란하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제가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 있다면 국내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키 씨도 얼마 전에 노벨문학상 후보로 언급된 일이 자기로서는 고역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게 진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노벨문학상 위원회에서는 사나흘 정도 전에는 5위권 정도 되는 작가에게는 전화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상을 받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제 책이 해외에 번역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엔 제가 의도한 바가 있었죠. 처음 소설을 낼 때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저는 제 소설이 꽤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늘 2~3만 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국의 독자들은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나는 역시 세계무대로 나가야 해!’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해외만 나가면 다 끝났어!’ 하는 마음이 들었죠. (청중 웃음) 현재 17개 언어로 한 40개 정도의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군데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의 독자들이 제 소설을 제일 많이 사보고 있고요, 한국 독자들이 저를 이해 못해서 안 팔렸던 게 아니라 안 팔릴 소설이라 안 팔렸던 거더라고요. 꽤 여러 나라, 그것도 꽤 괜찮은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도 엄청나게 팔리거나 팬덤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겸허해졌어요. 그 뒤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해외에 책이 나온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해외 나가서 행

사를 할 때 느끼는 건데 제가 그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폴란드에서 겪은 일인데 제가 앉아있고, 그 옆으로 사회자, 번역자, 비평가가 앉아 있고 폴란드 청년들과 함께 제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만 못 알아들어요. (청중 웃음) 제 소설인데도 자기들끼리 떠들면서, 통역도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해줘요. 저는 알리바이로 있는 거죠. 그런 걸 여러 번 겪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아이를 데려와서는 ‘이게 니 아이다!’ 하는 기분인 거예요. (청중 웃음) 책을 보면 제 사진도 있고 제 책 같긴 한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번역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르죠. 참고로 저는 번역된 소설은 해당 국가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레 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한국 문학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이해할 수도 없지, 독자랑 소통도 안 되고요. 옛날에는 그런 행사로 외국에 가면 알아들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번역된 작품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신이 나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모국어로 열심히 책을 쓰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잘 알아듣는 한국의 독자 분들과 함께 생을 마칠까 합니다.

Q2. 이야기 수요가 늘었다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서울연구원도 서울시에 보고를 할 때 서울의 미래는 위기와 갈등이라는 부분으로 시작해요. ‘서울 난리 났다, 큰 일 났다, 이러다간 90년 후에 망한다, 그래서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게 가슴에 크게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잘하는 것, 앞으로 잘해야 하는 것으로 시도도 해보는데 반응은 썩 좋지 않았어요. 이야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이 굳이 갈등과 위기로 시작해야 하는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A2.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성서』를 보면 낙원에서 이브가 아담을 꼬셔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위기로 시작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아벨을 죽입니다. 아버지 신이 물어보죠. ‘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제가 뭐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반항하죠. 이야기는 이런 식입니다. 이집트에서 평화롭게 살면 되는데 출애굽을 한다거나 욕은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한다거나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가 혹시 없는지 찾아보았지만 없더라고요. (청중 웃음)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1950년, 60년대 이야기에 대해 자의식이 생길 무렵 프랑스에서 여러 실험이 있었어요. 누보 로망(Nouveau roman)도 그 가운데 하나이고, 이후에 모더니즘 작가들이 갈등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작품들을 만들기도 했

죠. 위기와 갈등으로 시작되는 이야기를 촌스럽다고 하여 이런 걸 빼고 묘사만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쓰거나 일상을 중심으로 건조하게 서술하는 식의 시도도 했습니다. 한동안 프랑스 비평계를 중심으로 이런 종류의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런데 지금은 퇴조했죠. 요즘은 근대 신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벤져스>가 개봉했습니다만 슈퍼 히어로물이 엄청 인기죠. 뿐만 아니라 <반지의 제왕>이라거나 <호빗>, 다시 돌아온 <뱀파이어>와 같은 중세이야기, 고대이야기들을 보면 오히려 1950~60년대 있었던 이야기에서 이야기성(性)을 제거한다는 실험은 그때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가로서는 이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습니다만, 아직까진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설령 어떤 조그만 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기와 갈등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야기는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Q3. 선생님 광팬으로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Q3-1. 좋아하는 가수와 좋아하는 영화가 궁금합니다.

A3-1. 좋아하는 가수는 요새 몇 번 작업을 하게 된 이이언 씨입니다. 저랑 작업을 몇 번 같이 했고 제 작품의 트레일러를 만들기도 했죠. 그의 노래 가운데 서울연구원에서 들으셔야 할 노래도 있습니다. 한희정 씨가 피쳐링 한 ‘서울은 흐림’이라는 노래 인데요, (청중 웃음) 오늘같이 흐린 날 들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은 흐림, 내일도 흐림’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서울의 대기 환경을 개선하셔야 할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은 노래라서 꼭 추천 드리고 싶네요. (청중 웃음)
최근에 본 영화는 <킹스맨>. ‘매너가 인간을 만든다!’ 때리고 싶은 만큼 나쁜 놈들을 볼 때마다 ‘킹스맨이 해결하겠지!’ 하고 참습니다.

Q3-2. TV를 많이 보시나요?

A3-2. 네.

Q3-2-1. TV 보는 것과 책 많이 보는 것은 병행하기 힘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병행할 수 있나요?

A3-2-1. TV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전 <무한도전>을 8년 정도 보지 않았어요. 잠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그래서 안 봤죠. 가수 이적과 친한데 그 친구가 무한도전 팬이에요. 팬질하다가 무한도전에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무한도전>을 2년 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한도전>을 이야기로 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이야기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요. 가령 『오디세이아』는 서사시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여러 갈래가 나오고요, 중간에 모험들이 계속 되는 식이죠. 가다보면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우스 행세를 하는 다른 사람을 만나요. 고대시대에도 여러 오디세우스가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가 외삽된 거죠.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병렬적으로 진행됩니다. 서사시는 옛날에 두루마기로 쓰여 졌고 사람들이 지금만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133회, 그 다음 주에 134회를 하고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슬쩍 넣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그런 오디세이아의 세계가 바로 <무한도전>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무한도전>의 저자는 누구인가? PD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가도 서너 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대사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재석도 애드립을 치니까 작가죠. 상황만 주어지면 무도 멤버들이 각자의 캐릭터로 행동을 합니다. 박명수도 난장판을 피우고 어떤 때는 뽕슬레이도 하는 식의 캐릭터로 존재하죠. 여러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텐베르크 이후에 생겨난 열려 있는 형태의 서사시적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TV를 보긴 봅니다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랑 TV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청중 웃음) 요새 제 처는 <풍문으로 들었소>를 재밌게 보는데 전 캐릭터와 플롯 분석을 합니다. 캐릭터가 무너지고 있다는 등,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식의 예측도 하고, 저 인물의 설정이 잘못 되었다든가 하면서 드라마에 계속 빠져들고 싶어 하는 아내를 짜증나게 하죠. 이거는 좀 직업병이기도 해서 어쩔 수 없죠.

저는 TV 시청과 소설 읽기가 상충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방송국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습니다. 각자 자기와 다른 장르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의 영감이 있으니까요.

Q3-2-2.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영감을 어떻게 얻어서 만드느냐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영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뭔가를 해야지 나오는 거지, 명상하다 나오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초가 되는 것은 자기 내부에서 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

게 얻는지, 얻으려고 노력하는지 궁금합니다.

A3-2-2.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취재하고 다니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서 특히 오래된 이야기들을 많이 봐요. 푸쉬킨의 『스페이드 여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런 형식을 한 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의 것들을 재밌어하죠. 『빛의 제국』 경우도 『율리시즈』 형식, 즉 하루에 한 사람이 많은 일들을 겪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변형한 형태입니다. 고전형식을 그대로 갖고 오거나 거기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변형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야기가 안 풀리면 오래 전에 읽었던 소설이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TV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Q3-3. 노벨문학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소설이 다른 소설보다 문학적인 가치가 크다는 것인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3-3. 노벨문학상 위원회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겠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계속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작품이 위대한 작품인가를 결정하는 힘은 여러 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 기준보다 더 강력한 힘은 문학의 선진국들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프랑스라든가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유력한 출판사들이 고전들을 전집으로 내잖아요. 그곳에서 나타나는 선택의 힘이죠. 매년은 아니지만 몇 십 년 만에 바뀌고 어떤 때는 호메로스의 작품들이 1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같은 경우는 1권을 『안나 카레니나』로 선정했죠. 민음사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시작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학 고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문학의 기원으로 보고 어떤 작품들을 놓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끝없이 유동하면서 생기는 거고 여러 권력들이 경합을 하고 있어요. 30년 전에는 고전이었던가 지금은 사라진 작품들도 꽤 됩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같은 작품들이 그렇죠. 옛날에는 대부분의 세계 문학 전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빠져 있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헤밍웨이의 소설이 빠지는 대신 최근에는 밀란 쿤데라의 작품들이 새로운 고전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르헤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전’이라는 단어는 classis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함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대요. 고전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질서정연한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라는 건데 이렇게 본다면 함대의 구성이 매년 여러 힘에 따라서 조금씩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이죠.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미디어의 주목을 많이 받지만 이들이 함대를 구성하는데 그리 큰 힘을 갖고 있진 않아요. 유럽에 역사

깊은 출판사의 편집자들을 만나 보면 생각하는 것만큼 노벨상 위원회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벨상 위원들이 이번에 누구를 뽑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실은 자기네들이 세계문학계를 움직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문학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cannon, 즉 고전과 정전을 만들기 위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또한 바뀌겠죠.

Q4. 저도 선생님 책 좋아하는데, 강의도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설을 쓰실 때 여러 번 쓰면서 한 번에 완성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제목은 언제 선정하시나요? 어떤 소설을 보면 그 남자, 그 여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이름을 못 정해서 그런 건지 아님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A4.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궁금해 하시네요. (웃음)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끊임없이 수정을 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소설을 재밌게 쓰는 작가들을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굉장히 잘 해요. 사투리를 쓰니까 어눌해 보일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말을 잘 합니다. 그래서 문단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설가, 시인, 평론가들이 술을 먹으면 소설가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시인들은 소설가들이 말하는 틈을 타서 촌철살인을 하려고 기다리는데 타이밍을 몇 번 놓치고 좌절하고 앉아서 과묵하다는 소리를 듣고 (청중 웃음) 평론가들은 열심히 듣고 다음 날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얘기해 준다고 해요. (청중 웃음)

소설가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수정하고,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를 따지면서도 동시에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롯이란 걸 짜게 되잖아요. 플롯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보를 배분하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주면 흥미를 잃겠죠. 과연 이 여자는 누가 죽인 것인가. 큰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마지막에 줘야 끝까지 소설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하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중요한 장면까지 독자들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고칠 수밖에 없어요. 수백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뇌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는 직업입니다. 논리적인 면도 생각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면으로는 문장의 미적인 것을 고려해야 사람들이 읽잖아요. 물론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문체보다는 정보의 배분을 잘해서 구성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장을 다듬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늘 6, 7개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

작하고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을 썼을 때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끼길 원치 않는다면 다르게 설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상훈이, 영수 이러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경자 이러면 나이가 좀 드셨구나 하는데 셋별이, 한빛이 하면 좀 어리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을 구체적으로 주고 싶다면 그 이름을 써야죠. 그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면 그걸 탈색시키는 거죠. 밀란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주인공들의 얼굴, 외모, 키 이런 걸 하나도 묘사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독자들이 그 인물들을 주변에서 만날 것 같은 사람으로 느끼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인물로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토마스, 프랑크, 자비에르, 테레사 이런 흔한 이름들로 단순한 코드처럼 주고 키나 생김새 같은 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는 게 사람들이 읽고 났을 때 토마스에 대해 물어보면 키도 크고요, 눈도 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중 웃음) 독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거죠. 제가 만약 경자라는 특정한 이름을 썼는데, 그 친구가 20대라면 독자들은 부모가 교육을 덜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선입견을 형성하게 되니까 그런 걸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아닐 땐 안 하는 거죠.

소설에 있는 수많은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은 문장이 주는 효과들을 다 고려해서 작가들이 넣거나 빼고 하는 것이고 재능 있는 작가일수록 이런 것들을 잘 쓰죠. 그래서 이것을 마치 목수들이 갖고 있는 공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양할수록 작가들은 더 편하겠죠. 재능이 없는 작가는 이런 것을 적게 갖고 있다는 거고 몇 개 안되는 톨로 소설을 지어야 하니까 만드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크게 흥미롭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 박수)